

시니어 순모임(6 월)

- ❖ 찬 양---찬송가 288 장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다같이
- ❖ 대표기도 ----- 말은이
- ❖ 감사제목 나누기 ----- 다같이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내용 나누기)
- ❖ 기도제목 나누기 ----- 다같이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세요)
- ❖ 말씀나누기 ----- 다같이
- ❖ 합심기도 ----- 다같이
 1. 블레싱 파크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역과 다음
다음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마당이 되게 하옵소서
 2. 여름 단기선교팀 모두가 안전하고 은혜롭게 선교를
마치고 선교지에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 ❖ 광고 ----- 말은이
- ❖ 주기도문 ----- 다같이

📍 알려드립니다.

1. 시니어 순모임을 종강합니다. 다음 순모임은 10 월에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더욱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담당목사(최정호) 휴가 기간(6 월 23-30 일) 동안은 장례 또는
응급상황 발생시 순장 또는 목양담당목사에게(703-678-1043)
연락을 하면 됩니다.

(통일 204)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

거룩한 생활

F. J. Crosby, 1873

보통으로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BLESSED ASSURANCE: 9.10.9.9.REF.
P. P. Knapp, 1873

1. 예수를 나 의 구주삼 고 성령과 피 로써거듭 나 니
2. 온전히 주 께 맡긴내 영 사랑의 음 성을듣는 중 에
3. 주안에 기쁨누림으 로 마음의 풍 랑이잔잔 하 니

이세상 에 서 내영혼 이 하늘의 영 광 누리도 다
천사들 왕 래 하는것 과 하늘의 영 광 보리로 다
세상과 나 는 간곳없 고 구속한 주 만 보이도 다

후렴
이것이 나 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의 찬송일 세

나사는 동 안끊임없 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다 아멘

복음이 가져오는 새로운 세상, 에베소서 6:5-9 절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강조하고 인간을 억압하는 잘못된 체제에 변화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복음은 결국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남편과 아내의 삶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었습니다. 오늘은 종들과 상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번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세상이 바뀝니다.

5 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에게 상전에 대한 순종할 것을 말하며 이 때 순종의 의미는 마음 없이 하는 굴종이 아니라 권위 아래에서 마음을 들여 듣다는 의미입니다.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듯 상전을 대하라는 말입니다. 6-7 절 말씀을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게 하듯 하지 말라” 바울은 종들에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모든 안 모든 성실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즐겁게 하라, 노예의 삶이라도 기쁘게 감당하라고 권면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하라’는 의미는 정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이라는 헬라어는 “프쉬케, 영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담아 정성다해 행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이 노예로서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할 것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세레 요한에게 세리, 군인 등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세레요한의 대답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일하다”는 “아바드”라는 말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사람이 변화되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9 절은 상전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 9 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아라” ‘너희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주님처럼 대하듯 너희들도 종들을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바울이 잘못된 노예제도나 여성해방을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동일하게 창조하신 인간을 이렇게 대하는 사회를 그냥 보고 있습니까? 바울의 관심은 세상체제의 변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 노예제도가 없어진다고 노예 같은 삶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은 세상정치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인격체의 진정한 가치를 본 것입니다. 체제가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입니다. 노예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는 세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하나인 세상, 남녀와 빈부가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입니다. 바울은 세상을 바꾸는 것 복음의 능력, 인생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28,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 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인가?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상전이 따로 없고 종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고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고귀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다 소중합니다.